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임가영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워크 워크 프로젝트>

일시 : 2017년 5월 20일 (토) 오후 4: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작가 : 임가영

패널 : 이성휘, 이정형, 문선아

임가영 : 여기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13년에 제가 진행한 작업 중에 <네티페미니스트>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 특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단 댓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쓴 댓글을 분석해서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지 결과를 도출한 후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1인 시위의 형식을 통해서 한 작업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제가 단 댓글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저의 네티즌으로서의 정체성은 네티페미니스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작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어조로 인터넷상에서 페미니스트와 같은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퍼포먼스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저의 댓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적혀진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반 정도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고, 약 8회 정도에 걸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제가 그 때까지 쓴 댓글을 다시 타이핑을 했을 때 걸렸던 시간이 재보니깐 총 한 시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같은 한 시간 반 동안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저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오프라인으로 고집어낸다든지, 두 공간 속에서의 나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어 내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위 장소는 광화문 광장, 시청 앞, 여의도 MBC, 국회의사당 등 1인 시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시위 장소에 따라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은 보안상 입구 앞을 지키는 경찰들이 의무적으로 시위자들에게 시위 목적을 물어보게 되어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위를 하고 있을 때도 경찰이 와서 "뭐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작업의 취지를 설명해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나의 인터넷 공간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네 작업 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하니깐 더 이상 듣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무전기에 대고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티페미니스트>의 퍼포먼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 작업에 추가적인 맥락이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으로 보여드릴 <페인팅>작업에서도 작업 장소와 관련해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진행한 페인팅 작업을 이전에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작업들이고요. 그때의 작업 장소는 제 대학원 실기실과 대학 안의 전시 공간이었어요. 이 때는 미술대학이라는 제도적인 미술 공간 안에서 저한테 주어진 공간을 아버지가 칠해주는 것으로 작업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했어요. 다만 이 때 색은 제가 결정을 했는데 이 색은 아버지의 작업용 차량의 색이었어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재료를 보관하시고 일할 때 쓰시는 작업용 차량인 벤이 저의 작업실과 의미적으로 대응된다고 보았고 색을 동일하게 칠함으로써 아버지와 저 사이의 연결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노동자로서 아버지와 미술 작업을 하는 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의 작업이었습니다.

2015년에 <야간작업>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작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전시된 작업과 노동과 예술이라는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미대건물에서 이뤄지는 두 종류의 야간작업을 두 명의 참여자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한 명은 미술대학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분이고 또 한명은 미술대학 실기실에서 작업을 하는 학생입니다. 참여자들 각자는 동일한 건물 안에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의 창문에서 어떤 신호가 조명을 통해서 쏘아지게 됩니다. 최종 영상은 참여자 각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작가에 의해 시각적으로 변환된 것을,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인터뷰와 함께 담게 됩니다. 좀 더 작업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층이 학생이 있는 실기실이고 아래층에 있는 이 작은 불빛으로 보이는 공간이 경비실입니다. 저는 같은 건물을 점유하는 두 사람의 일이 특성상 특히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두 명에게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 밤에 작업을 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한 단어로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한 단어를 모스 부호 신호로 변환했어요. 모스부호는 사실 시각적인 신호는 아니고요. 청각적인 신호인데 저는 on/off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호가 각자의 공간 내 조명의 on/off작동을 통해, 건물 창문의 깜빡이는 빛으로 밤풍경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의 인터뷰 내용은 결국 신호로 전환된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뉜 영상에서 하나는 해독할 수 없는 조명 신호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참여자가 이 신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명 신호 영상에서 건물 밑부분에 깜박거리는 것은 경비원 아저씨가 이야기 한 단어를 나타내는 신호이고, 위쪽 창문이 깜박거리는 것은 학생이 이야기한 단어예요. 작업에 참여한 학생 같은 경우 '밤에 야간작업 할 때 '그리기' 하나만 생각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담백하게 그려서 빨리 그림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생각만 한다' 라는 얘길 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 신호는 '그리기' 라는 모스 부호 신호예요.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 같은 경우는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원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며 그 쪽에 감정을 많이 실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조명 신호에서는 '신뢰'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최종적인 화면에서 보이듯 멀

리서 찍은 이 조명 신호를 단숨에 인지하기는 힘들고, 창문에서 불이 깜박이는 것 자체는 특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밤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지켜 보게 되면 조명이 주기나 리듬을 가지고 깜박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저것이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죠. 관객이 보면서 저게 신호일까, 신호라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는 약간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참여해 주신 경비원 오수인씨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 경비실 바로 앞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었어요. 학교 가로등은 항상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업에 필요한 경비실 밖으로 깜박거리는 그 불이 가로등 불빛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오수인씨가 학교 전기 설비 관리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주셔서 그 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촬영하는 동안 그 가로등을 아예 꺼주셔서 경비실에 있는 작은 불빛을 포착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동해주신 그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 작업이긴 했는데 결과적인 이미지 자체는 소박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술과 노동이라는 그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작업입니다. <야간작업>을 도와주신 전기 기술자분과 <야간작업>과 동일한 프로세스의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섭외해서 학교 내부에 있는 가로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 전기 기술자 김명식씨가 제시한 단어는 '비정규직'이었어요. 야간에 일하면서 생각하시는 단어가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서울대 미술대학 건물에서 일하시는 경비아저씨,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다 서로 알고 계시고 친하시고 또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로 이 모스 부호를 정하고 싶다고 분명하게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모스신호의 의미와 인터뷰 내용 때문에 이 작업은 굉장히 뚜렷한 정치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니게 되었고 저는 이것을 작업의 시작점과 어떻게 매치 시켜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업 과정에 제가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로등을 끄고 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호기심을 일으키는 부분이어서 그 과정을 따라가 보았는데 전기 설비 시설은 구역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건물 지하에 있더라고요. 또 가로등 자체에는 on/off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설비 장치를 뜯어서 전선을 이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on/off 신호를 만들어야 했어요.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라 이런 식의 부탁을 드려도 될 것인가 걱정이 좀 되었어요. 이 분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질문의 대답으로 제시하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서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 작업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작업이 그런 영향력이나 사회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안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협업자와 작가의 기대와 목적, 서로의 관계나 위계 같이 윤리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 예전 작업은 이정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의 전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페인트칠이라는 것이 미술적 노동이면서 일상적인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때 미술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창작에 관련된 노동인 것이겠죠. 저의 아버지는 페인트 공이시고 아버지가 하는 페인트칠은 생계의 노동 혹은 일상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가 딸로서 페인트공 아버지의 페인트칠이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서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작업화하면서 생계를 위한 노동행위가 전시 공간 혹은 제도적 공간 안에 들어옴으로써 미술적 창작 행위로 바뀌거나, 또는 모호한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특히 노동을 퍼포먼스로 제시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나타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예전에 학교에서 진행한 작업보다 좀 더 구체적인 초점을 설정하고 싶어서 색채를 결정하는 대화나 의견 조율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색채 결정을 다룬 이유 중 하나는 페인트공은 자신이 색을 정해서 칠을 하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 그런 결정을 요청받는다든 것 자체에 예술과 노동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페인트공은 의뢰인이 이미 색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색으로 공간을 칠해주세요.' 라는 단순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전달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했어요. 이해를 못하시고 '내가 왜 정해야 되냐?' 하고 반문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색 자체에 대한 개념도 저와 다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빠가 집을 사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시는 색으로 칠하실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우선 페인트칠과 색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결국 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갔어요. 당연히 더 좋아하는 색이 있고 예쁜 색이 있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싶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푸쉬 했어요. 색을 정하셔야 된다고, 아버지가 정하셔야 우리가 하는 협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처음으로 아버지가 색깔을 정한 것은 이 현장에 와서 공간을 직접 보셨을 때였는데, 그때 이전 전시 작품들이 공간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즉흥적으로 색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림에 노란색 톤이 있으면 '노랑게 해도 되겠다'고 하시고, 녹색계열을 작품을 보시고는 '연두색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연두색으로 정했는데 이유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었어요. '흰색 벽에는 비슷하게 밝은 색을 칠해야 색이 잘 올라가는데 그러면 노란색이나 연두색인데 노란색은 조색을 해야 해서 까다롭다, 그런데 연두색은 흰색 페인트에 녹색염료만 섞으면 되어서 쉽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짠 작업 프로세스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을 흰색 텍스트로 벽에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데 연두색으로 벽을 칠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협의를 했죠. 컴퓨터로 전시장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흰색 텍스트로 벽에 드러나게 할 것인데 '연두색으로 할 경우 흰색이 잘 안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로 색을 쭉 보여드리고 좋은 것

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깐 갑자기 그 때 '보라색 괜찮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보라색과 연두색 두 가지를 다 준비했어요. 칠하기 전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즉석에서 색을 다 합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벽에 발라진 이 색이 나왔어요. 완전한 보라색은 아니고 약간 톤 다운된 보라색이 나왔죠. 그것이 제가 포착하고 싶었던, 완전 노동의 영역도 아니고 완전 예술적인 영역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지점을 아버지가 색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크워크 프로젝트>라고 전시 제목을 설정할 때 미술 작업의 워크와 일의 워크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하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를 다루고 또 저 자신의 어떤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장 한 칸에 설치된 공간은 저의 일터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전시장에서 하는 제 일의 과정은 작업 공간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연결된 전시장 벽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출력되어 관객에게 노출됩니다. 작업물의 성격상 보안 때문에 이미지 자체는 확대되어서 추상적이고 색을 채워가는 느낌만 전달하게 출력이 되게끔 했습니다. 저는 현재 웹툰의 컬러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게임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출판 만화 쪽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웹툰 쪽 일이 물량이 많아서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 관리한다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맞춰서 일감이 많은 것에 따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페인팅 작업과 같이 제 일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온 것은 이 일 자체가 정해진 부분에 정해진 색을 채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버지의 노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체도 다르고 디지털로 이루어진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와 연결점을 느끼기도 하구요. 또 원래는 집에서 혼자 하는 일을 전시장 안에서 진행함으로써 전시공간을 제 나름대로 사용한다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덧붙여 저는 이번 페인팅 작업에서 아버지의 노동이 공간의 외형을 바꾼 결과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측면에서, 수행된 행위로 인식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시장이 노동이 일어난 일터이자 현장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페인트칠 과정을 기록한 영상으로 전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제가 직접 안에서 일을 하는 일터로 사용함으로써, 전시장이라는 공간의 변화 가능성,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성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겹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문선아 : 이번 전시에서 작가님은 예술과 노동, 아버지, 공간이나 관계 그리고 제도에 의문점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가 그 쪽으로 많이 진행될 거라 예상합니다. 먼저, 예술과 노동을 말씀하셨는데 작가로서 공간 안에 이 둘을 그냥 병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그 공통점·차이점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임가영 : 한마디로 정의하면 애매한 지점을 포착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페인팅을 할 때 그것이 노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저의 아버지가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전시장이라는 제도적인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 삼아 해오셨던 것을 맥락에서 제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술과 노동이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게 병치가 아니라 애매한 지점을 만든다는 것은 작업이 주목하고 포착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에서 페인트칠이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맥락에 따라서 예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노동이 될 수 있는 지점에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스스로도 작업이 설정한 상황 속에서 페인트칠을 하면서 변화를 겪으세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일을 하러 가신다는 생각밖에는 안하세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건물에 가서 돈을 받고 칠을 한다는 맥락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 일단 와서 전시공간을 보시고 제가 색을 마음대로 결정 하는 과정과 아버지가 주가 되어서 벽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득을 드리고 나면 칠하면서도 본인도 이전보다는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일이 아닌, 평소와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벽에 칠할 색을 즉흥적으로 막 섞어버리는 등 예상치 못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포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노동이나 예술 둘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없이 구체적인 행위 자체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포착하고 싶었어요.

문선아 :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로 참여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님께서 아버지의 일상과 다르게 아버지께 색상을 선택하고 페인팅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작업에 대해 참여자이자 수행자로서 행동하길 바랐는지, 혹은 작가로서 행동하시길 바랐는지, 아니라면 또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와는 다른 지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수행자인 것도 같고. 작가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매함 자체가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가영 : 이 작업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작가의 기대의 측면에서 말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비단 이 작업뿐만 아니라 협업자를 끌어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작가의 기대에 맞게 수행을 해준 것을 작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가 결정하는 것, 결과적으로 참여자를 대상화시키고 소외시키거나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작가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사이에 미묘한 선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작업을 할 때도 당연히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작가인 저와 동등한 위치의 참여자로서 함께 작업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시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이 작업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창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기대를 강하게 품고 진행한다고 해서 작가와 협업자가 동등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기

대를 조금 많이 열어놓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특정한 무엇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한 편이고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가 작업 안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좀 더 작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면 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색을 결정할 때도 어떤 색에 대한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대를 조율하고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작업이다 아니다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작업이 되도록 수습하고 의미를 찾는 식으로 진행 했었던 것 같아요.

김인선 : 벽에 발린 보라색은 작가님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는 결과물인가요?

임가영 : 제가 처음에 아버지가 보라색과 연두색을 섞으셨을 때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색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이상한 색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져온 이 색깔들도 다 이상한 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도 걱정을 했었는데 정작 아버지는 '모든 색이 다 똑같고 모든 색은 다 좋다'라는 인식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는데 이게 마르고 나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왜 모든 색이 좋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페인트 칠을 통해 나타내는 색의 예쁨이나 가치는 어떤 색이 되었든 깔끔하게 도색된 벽에서 하나의 색이 통일감 있게 나타나면서 생기는 느낌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작업이 끝난 후에 저도 생각을 했어요.

김인선 : 그럼 만약에 이것이 마르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네 하고 놔두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르고 보니까 작가 마음에 너무 안들면 다시 칠했을까요?

임가영 : 아버지의 논리대로 라면 그런 색은 없는 것이잖아요.

김인선 :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다시 하느냐에 따라 아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결정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임가영 : 저는 아마 그대로 두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와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작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와서 해달라고 무리하게 부탁을 하는 것도 작업의 취지랑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이성휘 : 임가영 작가가 아버지와 작업을 진행한 태도를 보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유도하지 않고 잠자코 지켜보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작업할 때 협업이나 참여 대상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늘 고민을 해왔을 텐데, 지난번에 팟캐스트 녹음할 때에는 정반대로 아버지를 강

제적인 느낌이 들도록 세계 몰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조금 더 설명해줄 수 있나요?

임가영 : 이 작업을 통해서 협업자와 작가의 위치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해 의문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결과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작가로서의 제 역할이 강하지 않은 쪽을 선택해 온 것이 그 이유였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작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아버지가 색을 섞음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의미를 찾고 이것이 오히려 작업화 될 수 있는 지점을 계속해서 찾고 이랬던 것에 의미부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한 경험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질문은 남거든요. 그것이 아버지한테도 예술로서 의미있는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풀리지 않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강하게 의미를 결정하고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끌어들이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둘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동일한 작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거나 끝나고 나서 아버지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다음 후속작업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작업을 수행할 때 프로세스를 제 주도 하에 이끌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 현실적인 조건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성휘 : 그간 참여자들에 대한 작가의 관계 맺음이나 윤리적 태도는 아버지와 진행한 작업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 등 다른 작업의 참여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취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가영 : 네. 그렇죠. 비슷했고 그 비슷한 점에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 점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회적인 작업에서 무언가 강한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정형 : 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것이 임가영 작가가 노동과 예술이라는 주제를 이번 전시에 한시적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해서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네요.

임가영 : 예술과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페인팅 작업 외에 전시장을 일터로 삼아서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저의 처지와 작업 사이의 떼어낼 수 없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게는 작업이나 전시만을 위해서 따로 시

간을 내거나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체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일을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담 자체가 작업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떼어내고 완전히 다른 것을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가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실적 조건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도 항상 효율성과 경제성을 생각 하는데 내가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노동의 시간을 작업화 한다는 것은 작가로서 피를 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의 현실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계속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정형 작가님의 작업 설명을 보고 공감하고 곱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정형 :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가 많아요. 이 주제가 광범위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저는 작년에 난지창작스튜디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권용주 작가님하고 비슷한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이 작가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주제인데 작가만의 시각이나 특수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가영 작가는 이러한 본인의 작업의 포지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임가영 : 사실 그 부분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형 : 시각적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임가영 작가의 작업은 시각적으로 약간 건조하다고 할까? 아니면 객관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저는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의도하는 시각적인 어법이라든가 시각 예술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임가영 : 제가 두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 작업은 이를 떼면 개념적인 부분이 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객들은 어쨌든 물질적인 형식을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잖아요. 결국 특정한 미감을 포기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들로 관객의 경험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저의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전시장 벽면 텍스트의 글씨체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는 소거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의 정확한 수평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 편이고 다만 페인트가 칠해지면서 원래 있었던 시트지 뒤로 페인트가 스며들면서 자글자글해지는 효과라든지 작업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색깔 자체가 공간 전체를 통해 강하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는든지, 그런 방향을 의도하고 있어요. 결과물을 다듬고 세련화 시키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많은 불안감을 주더라고

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우연적으로 얻어진 결과나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형식을 저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을 더 연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아 : 이전과 유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워크 워크 프로젝트>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작업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들에서 작가님이 참여자들에게 바랐던 것이 있나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술과 노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감화시키거나 이런 의도들이 기반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가영 : 물론 바라는 부분이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김명식씨 작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명식씨를 섭외하고 조명 작업을 서울대학교에서 하면서 야간에 일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노동은 자발적이거나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없고, 능동성을 포기해야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없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화 할 때 싫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일부로서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담는, 스스로 자율성을 회복하는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큰 맥락에서 이러한 자율성이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지겹게 페인트칠, 전기 일,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래도 한순간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찾거나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해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식씨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인터뷰 현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없나라든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다른 대답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수정한다던지 인터뷰를 조금 더 끌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뚜렷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 작업이 나왔는데 그것이 작업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호한 지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애초에 질문 자체를 의도에 맞게 잘 구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성휘 : 이전 <넷 페미니스트>와 <야간작업>이나, 이번 <워크 워크 프로젝트>나 참여자들의 말이나 인터뷰에서 텍스트를 발췌해서 작업하는데 텍스트를 발췌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임가영 : 텍스트는 해석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텍스트가 공간 안에 배치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해서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코멘트 같은 것

을 추출했어요. '우에 이거는 안 칠하고?' 같은 경우는 직접 저기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기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힘주어서 이야기 하셨든지 저에게 강하게 받아 들여졌든지 하는 기준으로 뽑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은 고급이고' 이런 코멘트들이 추출이 되었어요. 추출하는 방식은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녹취한 다음, 스크립트를 보고 문장 자체는 편집 없이 추출 합니다.

이성휘 : 아버지가 페인트칠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발췌된 문장들이 벽에서 드러나는 광경을 보셨을 건데(스스로 드러나게 만드신 건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발췌된 문장에 대해 코멘트가 없으셨나요?

임가영 : 네 그게 칠을 진행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뺨끼칠하는 것' 부분을 칠하시면서 본인이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시고 '너네도 뺨끼라는 말을 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이 텍스트들이 나랑 아빠가 이야기 했던 것을 다 메모를 해놓은 거다. 아빠의 색과 말들이 채워진 공간이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저 뺨끼라는 단어를 빼야하는 건가(너무 속된 단어라서)'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뒀죠. 그 전에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는 잘 안 와 닿으셨던 거죠.

문선아: 아마도 제가 생각들이 겹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리된 부분까지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이 프로젝트가 작업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작가님이 제도를 활용해서 노동과 접지되는 부분을 전시장 안으로 위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참여미술의 대상으로 끌어안으면서, 작업을 구현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묻게 되는데, 참여형 예술이라면 아버지의 참여의 역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 관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이 특정한 대상이 있는 참여미술에 가깝다는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페인트칠이라는 유사성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페인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을 때, 그 경계가 지금처럼 모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선: 제 생각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칠하는 분들을 제외해서 함께 할 때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철저히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업하고 일을 시키고 하지만, 임가영 작가님은 수많은 페인트 공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를 끌어들이므로써 모호하고 정리가 안 되고 레이어가 두껍게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난 느낌이 있죠.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수한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가영 : PT & Critic 프로그램 사전 미팅을 진행하면서 왜 아버지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지요. 작업과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작가가 정할 수 있잖아요. 색칠을 결정하는 문제로 특히 영상 작업의 초점을 좁혔을 때에는 좀 더 노동자로서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부각되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전시 공간 안에 배치되는 텍스트 같은 경우 노동자이면서 아버지이기에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추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로 돈을 많이 벌겠냐' 이런 말들은 딸이기에 더 강한 어조로 부담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제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관객으로서는 예술로 돈을 못 버니까,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전시 안에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작업을 참여형 작업으로 볼 때 작업 참여자로서의 아버지의 참여 방식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선행된 질문의 대답 속에 좀 더 다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참여 대상'으로서의 제 아버지는 페인트공-노동자, 아버지-딸 등 저와의 관계에 강하게 묶여있고 작업에서 작가가 설정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참여의 역량 또한 그러한 관계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 인터넷으로 생계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물리적 공간 말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작업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임가영 :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높은 가능성으로 다음 작업에서 그런 주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어쩌면 제가 노동을 하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 작업을 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전시장에 설치된 공간에서 일하며 작업 일지를 쓰고, 화이트보드에 스케줄을 기록하는 등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월급 루팡하듯이 컴퓨터에서는 SNS를 켜놓고 일을 하게 되더라구요. 자연스럽게 그 곳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올리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짜 작업일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작업공간은 전시장에 있지만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그 기록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제 삶의 패턴이라든지 제가 머물고 있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선아 : 작가님께서 노동이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노동은 별로 즐겁지 않고 예술은 조금은 더 즐겁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임가영 : 노동이 즐겁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노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계급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노동이 어떤 전형으로서 작업에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괴로운 노동에 실제로 익숙하기 때문에 작업으로 다루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기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들에 익숙하고 사실 아버지의 노동에 집중하게 된 것도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던 측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한 자본으로 제가 작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예전 초기 작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형 : 본인이 하고 있는 노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작가로서의 노동과 생업을 위한 노동의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김인선 :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노동과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구분도 하고 예술행위를 하기 위해서 생계노동을 따로 두기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 작가들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넓힌다고 해야 하나 좁힌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티스트피(artist fee)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깐 이만큼 받겠어'하는 태도가 저 같은 윗세대 입장에서는 예술을 노동자로서의 환원을 원하는 제스처처럼도 읽혀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젊은 작가들에 의견도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작가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선아 : 저는 아티스트 피를 얘기할 때 언급되는 노동의 개념이 임가영 작가님이 다루는 노동 개념과는 계속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과 노동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라면 저는 예술 노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 안에 노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노동으로 아예 환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3년 즈음부터 아티스트 피 등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때 말하는 노동과 임가영 작가님의 노동은 그 맥락이 살짝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 : 임가영 작가의 작업은 예술의 노동과 일상의 노동 간 정체성을 살피면서 둘 사이의

경계가 지워진 접점을 찾는다고보다는 오히려 서로 상이한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끊임없이 서로 계급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가가 협업자로 참여시킨 아버지의 노동은 전시를 통해 임가영과 아버지 사이에서 누군가의 선택과 분석을 통해 계급화되고, 작가로서 임가영의 노동(본업과 부업 포함) 또한 본인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마찬가지로 상황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인선 : 마지막에 평론가이신 안소연 선생님께서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긴 시간동안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